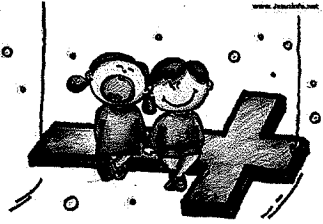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사람과 내 생각을 나누고 싶다



악할 이유가 있어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기막힌데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 “난 질투 같은 건 안해” 하며 질투가 얼마나 못난 사람의 감정인지를 설교하는 사람보다 천박한 질투의 감정으로 질편하게 목욕한 적이 있는 사람

배운 티 풀풀 내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을 딱딱 무시하는 사람아 아니라

배우면 배울수록 넉넉해지지 않고 왜 더 교묘해지는지, 소박함에서 멀어지는지 그걸 고민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라며 무조건 자기 의견이 이성적이라고 우기는 사람보다는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세계를 유추할 수도 있는 사람.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라면을 끓여 먹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서 중요한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

밤 뉘라, 대추 뉘라 일일이 간섭하는 사람보다는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관심하게 뉘 줄 수도 잇는 사람.

예쁜게 뭐 중요해?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쁘다고 말해 주는 사람 앞에서 가슴 뚫듯해질 수 있는 사람.

소문난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해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좋은 사람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명한 사람들을 가진 사람.

소크라테스가 말했고 빌 게이츠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꺼번 죽으면서 꿈쩍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를 물어줄 수 잇는 사람.

돈있고 힘잇는 사람들이 모이는 파티에 참석하는 것보다 마음 맞는 사람과 도란도란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과 내 생각을 나눠 갖고 싶다

-이주향 '운명을 디자인하는 여자' 중에서-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3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9월 12일
☎525-3858/369-5077.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그 자리의 예배당”



양구에서의 군생활시절, 주일이면 외출 나와 예배를 드리던 양구시내 언덕에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찾아가 보았을 땐 참으로 크고 좋은 예배당으로 변해있었습니다. 한 쪽에서 있던 줄을 당겨 치던 키 낮은 종만은 그래도 나 같은 뜨내기 나 그네를 위해 잡풀 속에 다리를 묻은 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소박한 교회로 남아있어 주기를 바란 마음은 순전히 나만을 위한 커다란 욕심임을 알면서도 왠지 허한 마음이었습니다. 다행히 친절하게 사무실에서 대해 주던 사모님 같은분의 인상으로 그때의 소박함을 작게나마 맛 볼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예배당이지만 그 예배당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를 20년 동안 기다려 주신 아버지였습니다. 품도 넉넉했고 웃음도 환한 그런 모습의 하나님 이였습니다.

그저 민간인들과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좋았고 절도 있는 군가만 부르고 듣다가 성가대의 화음 어울린 찬양에 넋을 잃던, 교회를 향한 욕심이란 것은 눈곱만 큼도 없던 그때의 아름다움이었기에 어느 누가 나의 귀향을 반겨 주지 않았어도 나는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떠나올 땐 이젠 또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다시 찾을 수 있을까하는 마음에 자꾸 돌아다 본 군 생활 시절 나를 지켜준 예배당.

그 자리에 있는 예배당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문득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향, 아무런 꾸밈이나 욕심 없는 그런 ‘갈보리교회’ 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팔팔했던 군대 시절의 추억을 찾아 다녀온 ‘양구’ 로의 추억여행이었습니다.

-김성국-

◀답살 듣는말 한번쯤 하기▶

아내 : 당신 응급처치 할 줄 알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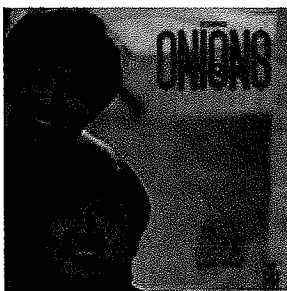
남편: 왜?

아내: 당신 내 심장을 멎게 하거든요!

◀그땐 그랬지▶ 가수 “어니언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공부하다가 심야음악 방송에서 어니언스의 ‘편지’ 라도 흘러 나오는 날은 그것으로 공부끝이었습니다. ‘편지, 작은새, 저 별과 달을, 사랑의 진실’ 등 한 장의 앨범에 담겨진 노래가 대부분 어떻게 그렇게도 사랑받는 노래가 될 수 있었을까요?

50대 중반이 된 그들이 30년만에 다시 듀엣으로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만 들려 오는데도 왠지 가슴이 뭉칩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34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7 (시 16)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91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순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13:44-46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 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천국은?(4)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곳"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221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9월의 예배위원◆

◆9월의 교회력◆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주 일	예배와 모임
5	현석호	최현철	4구역	5	구역예배(10)
12	김순자	한상미	5구역	12	믿음의어머니기도회(14)
19	김영길	한상숙	6구역	15	성찬주일 은 십자가성가대(4남)
26	김종건	한상순	청년부	26	식사친교(추석)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입원> 현순진 성도(이종인 집사부인) North Shore HP. Ward 8. Room L
-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일시> 24일(화) 오후 1시 교회당
*기도는 응답의 체험을 해보면 볼 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이룬 것은 주위에 나 몰래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 학생부 Term Break "1일 Camp"
*<일시> 18일 (토) 11am-4:00pm <장소> Avondale College
*차량없는 학생: 교회에서 10:20am 출발
- 다음주일은 "은 십자가 성가대" <제 4남선교회>
*3040세대가 어우러진 신세대, 우렁찬과 순박함에서 은혜를 체험케 되는 찬양을 기대해 봅니다
- 다음주일은 "성찬주일" 로 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이렇게 보여지는 잔과 떡으로 우리 앞에 놓여질 때 다시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 오늘 본교회에서는 Remuel 신부님의 Farewell Service를 드렸습니다.
*위험한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목으로 활동하고자 자원하여 떠나시는 신부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수요일예배(수요성경강해 "레위기") <수요일 저녁 7:30>
*제사장 위임식: 오른쪽 컷부리, 엄지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름(레8:22-23)
문둥병 치유선언: 오른쪽 컷부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름(레14:14)
-어쩌면 그렇게도 제사장 위임과 문둥병자의 치유선언이 같은지요. 아무리 추한 죄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으면 제사장 반열의 거룩한 자로 삼는다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지난번 강해를 준비하면서 발견하였습니다.

◀착한 시인들▶ 구름 천상병

하늘에 둥둥 떠있는 구름은
지상을 살피러 온 천사님들의
휴식처가 아닐까
하느님을 도우시는 천사님들이시여
즐겁게 쉬어가시고
잘되어 가더라고 말씀하소서
눈에 안 보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할지 모르니
널리 용서하소서

서슬퍼런 시대의 고문 희생자로 살아야했던 시인은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함을 잃지 않았습다. 그것이 말년엔 하나님을 예찬하는 삶으로 이어져 더 없는 맑음으로 빛났습니다.

누이의 산소에서 내려와서 공원 관리 사무소 앞에 비석으로 서 있는 시인의 "귀천"을 다시 읽어보며 그에게 고마움을 가졌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찬하다니'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따라 하나님 이름을 들먹일 때 영광도 되고 걸림돌도 됩니다. 같은 이슬을 먹는데도 뱀이 먹으면 독이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듯이 말입니다.